행복을 분양합니다

김시탁
(주)대성 사장

우리나라의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내 집 없는 설움이 한이 되어 무엇보다도 집 한 칸만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소유욕이 대단했다. 그 정서의 영향은 재형 저축이니 청약 예금이니 청약 부금 등 내 집 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들을 앞다투어 만들어내며 은행 창구를 붐비게 했다. 무엇보다도 내 집 장만부터 하고 보자는 의지는 생활비의 상당량을 꼬박꼬박 넣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마음만은 즐거웠던 것이다. 객지에 나가 집칸이라도 장만하면 출세했다는 얘기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때였으니….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 자체의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누구의 집이든 살기 좋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살기 좋다는 의미의 판단은 대부분 여성들의 몫이다. 어쩌다 부부끼리 모델하우스를 관람 후 분양을 받는 데 있어 의견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건설회사들은 설계에서부터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이 호감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는 15년 동안 아파트 분양 업무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다. 주로 지방에서 분양을 하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이 익은 편이다. 그 중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중년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중년 부부는 남편이 58세였고 여자는 64세로 남편에 비해 여섯 살이나 더 연상인 특이한 부부였다. 그들은 모델하우스를 들어설 때부터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홀에 들어서자 남편분이 안내 도우미에게 분양 책임자를 찾아 달라고 하여 만나게 되었는데 필자에게 하는 부탁이 자기의 아내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억대가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상담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기에 필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분양팀 중 가장 경험이 많고 친절한 직원 한 명을 지정해 안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분이 또 필자를 찾아 오더니 똑같이 남편에게 아파트를 친절하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부탁을 하길래 좀 엉뚱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탁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아름다움이 묻어 있었다.

남편의 직업이 대학 교수여서 서재가 넓어야 하니 48평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내의 말에 48평형은 아내가 청소하고 관리하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 작은 평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남편의 염려가 고작 그들 부부의 의견 차이였다.

팜플렛을 들고 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백지 한 장을 꺼내 놓고 "여기는 당신의 장롱을 놓고, 여기는 화장대, 여기는 문갑, 그리고 이쪽 벽에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걸고, 거실 베란다에는 노랑 장미를 심고, 작은 원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을 밝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 부부는 결국 48평형을 분양받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은 아이들이 없어 보육원에서 아이 둘을 데려다 키울 생각으로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 넓은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었다. 두 부부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 방 꾸밀 궁리며 침대와 커튼의 색깔 등을 정하며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았다.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나가서는 서비스 면적이 넓어서 좋다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베란다의 서비스 면적보다 '마음과 사랑과 삶의 서비스 면적이 더 넓고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을 보니 아파트만 분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그들이 데려다 키울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꿈을 분양한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다. 특히, 그들 부부가 "우리들은 자식이 없으니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우리들의 양자 앞으로 좋은 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잘 지어 달라"고 필자의 두 손을 꼬옥 잡아줄 때는 가슴 속으로 뜨거운 감동과 책임감이 끓어올랐다. CJ